

김형운 주무관, 56세에 9급 합격 1년만에 7급도 합격

“젊은이들, 실력 기르면 기회는 꼭 온다”

공직 꿈꾸는 공생들에게 자원봉사 강의 중 퇴직 2년 남아...선후배에 영어 가르치고파

지난 2014년 56세의 나이에 전남 9급 행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최고령 합격자가 1년만에 전남 7급 행정직 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나주 남평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운(58·사진) 주무관은 환경·청소·민방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공무원이 된 지 고작 2년이 지났지만 퇴임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조만간 명예퇴임을 앞둔 김형운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교 동기인 김 주무관은 직원과 공직기간으로 김 부지사와 비교할 수 없지만, 2년 더 공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지난 1984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갑작스럽게 지난 2009년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니 제 자신이 무척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미 50이 넘었지만, 2010년부터 그는 ‘인생 이모작’에 나섰다. 가장으로서 떳떳하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영문학 석사로 영어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다른 과목은 과목당 노트 1권을 만들어 무조건 읽어내려갔다.

“한 2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



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는 나이가 되다보니 어려움이 컸습니다.”

“막무가내 공부법”은 5년여 만에 빛을 내주었다. 2014년 전남(나주) 9급 행정직과 서울시 9급 행정직에 나란히 합격한 것이다. 여건상 나주 근무를 선택한 그는 쉬지 않았다. 곧바로 7급 준비에 들어갔다.

“원래 7급 공부를 했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요. 막상 9급에 합격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더라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손아저는 잠과 사투를 벌

이며, 다시 ‘젊은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냈다.

퇴임까지 해보고 싶은 일이 두 가지다. 자신의 장기를 살려 동료, 선후배 공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국제교류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자원봉사로 가르치고 있는 ‘공생’ 6명을 합격시키는 것이다. 주말마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 예상문제를 뽑아 강의하고 있다. 최근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모두 낙방해 6월에 있는 시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워낙 늦게 들어오다보니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동 유치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을 공동으로 유치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상생발전전에 매진해온 양 시·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9일 “양 시·도가 공동으로 응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와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의료관광시장이 침체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필요해다. 의료관광 유치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의료·뷰티·미용과 관광·휴양·웰니스 등 상호 비교우위 자원을 융합해 서로의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공동 개발, 의료관광 안내 및 지원체계 구축,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과 함께 중국 중심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사업 추진, 제2남도대학 설립, 광주-전남 농부정터 개장 등 연계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2차 예비실사

국내·외 자문단, 주상절리대·화순 적벽 등 방문

무등산권의 국제적 가치 검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국내·외 자문단이 광주를 찾아 28일과 29일 이틀간 예비 실사를 했다.

광주시는 예비실사단이 이틀간의 실사를 통해 “무등산권의 우수한 지질자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정현 광주시장은 28일 광주를 찾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사무총장 패트리 맥키버(Patrick J Mc Keever), 대한지질학회 회장 허민 전남대 교수 등 2차 예비실사단을 만나 격

려하고 동행했다.

2차 예비실사단은 윤 시장과 함께 호수생태원 지질공원탐방안내센터에서 어린이 지질교육프로그램 ‘조물조물 나만의 지질구조 만들기’를 참관하고 소방헬기에 동승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인 주상절리대, 화순 적벽, 화순 운주사를 둘러봤다. 윤 시장은 예비실사단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광주 정신을 품고 있는 무등산이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폐막 25일간 관람객 91만명 달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개최된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29일 나주시민과 함께 하는 폐막 축하공연을 끝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25일간 열린 박람회에는 91만명이 다녀갔다. 난해한 주제로 흥행을 걱정했던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와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박람회는 ‘3개의 아름다운 야외전시장’과 ‘7개의 의미있는 전시관’, ‘주제공연 하늘정원’, ‘난버벌 시리즈’ 등 볼거리가 풍성한 문화박람회로 치러졌다. 자연에 대한 파괴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에게 편리한 친환경디자인의 개념과 중요성을 함께 공유한다는 박람회의 취지도 살렸다. ‘디자인스쿨’, ‘에코피어브 체험존’은 물론 주말이면 22가지의 풍성한 체험행사가 곁들여져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유정현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금남로에서 열린 프린지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 지 조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80만 명 돌파 기념’ 선포식을 열고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학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람회를 계기로 대학교수,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한국친환경디자인협회가 창립됐으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친환경 디자인의 방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무겐디 율리타 세계디자인기구 회장은 “친환경디자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전남도와 이번 박람회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시민 ‘車 100만대’ 의지 높다...서명 80만명 돌파

대구·강원 등서도 참여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8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42일 만인 지난 27일 총 서명 인원이 80만1218명을 기록했다.

서명운동에는 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 청년·향우 뿐 아니라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도시인 대구시, 광주 인접 전남 5개 시·군, 강원도 등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5시 금남로에서 열린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유정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0만명

돌파 기념’ 선포식을 하고 희망풍선을 날리며 열망을 뽐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박주선-中 여행사, 유커 2만명 유치 협약

광주시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중국 여행사들이 중국인 관광객 2만명을 광주로 유치하기로 공식 협약했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 의원, 상하이 불야성국제여행사 등 중국 현지 7개 여행사와 사단법인 한중청년 리더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관광객 유치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중국 여행사들은 올해 7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3박4일 또는 4박5일 일정의 광주 여행상품을 판매해 12월까지 1만명을 순차적으로 광주에 보내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 내로 중국 관광객 유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가 유치한 단일 중국 관광객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행사들은 중국 최대 미디어 회사 중 하나인 신화미디어그룹(新華傳

媒)과 협약에 따라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광주 여행 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여행 일정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관람, 남도음식 체험, 지역 전통시장과 프린지 페스티벌 등 축제 즐기기, 지역 맛집 투어, 의료관광 건강검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금껏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대부분은 서울과 제주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지방도시들도 중국에서 각광을 받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준 이시장은 “협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중 청년리더포럼, 한중 청년미술 교류전 등 공익 프로젝트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간 협력의 성과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 형 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전해건설(株)에서는 전문건설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신입 직원과 전문성과 정확한 사무처리 능력을 가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근무예정지	모집부문	모집인원		경력직 자격요건	
		신입사원	경력사원		
본사	공무원	0	0	경력 3년 이상	
	재무회계팀	0	0		
현장	광주 세종 여수 서울 기타	건축시공	0	0	경력 무관
	안전관리자	0	0		

2. 전형절차

▷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우대조건
 • 건축기사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 시외근무 가능자

3. 채용조건

▷ 정규직 채용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시외 근무수당 주유비 별도 지급

4. 접수기간 및 방법

▷ 마 감 일 : 2016년 6월 10일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채용정보(사내양식 작성)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 (영주광역시 북구 첨단안신로 14, 33호 신영동 와이타워)
 ▷ 문의사항 : 전해건설(주) T. 062) 574-8501
 ▷ 홈페이지 : http://www.gunhae.co.kr

전해건설(株)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